

당신이 받게 될 질문 Matthew 25:14-30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내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정치적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aclean's 잡지는 캐나다의 트렌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사진).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언론사들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그리고 대통령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50년 아사드 정권이 2주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모스크바에서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사건들,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며, 2025년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2월에 일어날 것이라고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고 우리 시대를 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36에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2025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의 재림 날짜를 예측하라고 하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비유, 달란트 비유에 있습니다.

비유의 성경적 맥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4주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의 제5권, 19-25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19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네 권의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 1권: 왕국 시민(5-7): 산상 설교를 담고 있으며, 예수의 제자들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 2권: 왕국 선교(8-10): 예수와 함께 선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 3권: 왕국 우화(11-13): 예수의 임재를 둘러싼 갈등과 왕국이 역사 전반에 걸쳐 성장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 4권: 왕국 공동체(14-18):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 5권: 왕국의 충돌(19-25): 예수가 시작하는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 사이의 충돌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 주입니다.

참고: 1~18장에 기초한 모든 메시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24-25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떠날 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주의를 성전으로 돌립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마가복음 13:1). 예수님은 즉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성전은 방금 재건축되었는데, 왜 파괴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사진). 24-25장은 감람산 설교라고 불리는데,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감람산에 앉아있을 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3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역사의 통로를 따라 그의 재림을 향해 바라보십니다. 그는 가까운 사건인 예루살렘의 파괴와 먼 미래의 사건인 그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을 것이며, 기근과 지진과 재앙,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것들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시간표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을 인도해야 할 태도와 성품을 설명하시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의 재림은 갑자기 올 것이므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는 그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25년 말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오늘의 비유가 우리의 질문에 답합니다.

마태복음 25:14-15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적어도 두 단어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 단어 "talent"는 이 비유에서 그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영어에서 "talent"는 현재에는 정신적 능력이나 신체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달란트"는 돈을 의미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20년 치 임금과 동등했습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돈이었습니다(오늘날 가치로 약 70만 캐나다 달러). 노동자가 반평생에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의 주인은 부유합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한꺼번에 560만 달러를 현금으로 나눠줍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고대 세계의 "노예들"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비인간적으로 취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업 관리자나 회계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그의 거대한 현금 자산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다른 것을 상징하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노예들"은 제자들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주인의 귀환은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비유의 의도는 노예제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를 염두에 두고 비유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주인이 그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되. 한 종은 100년 치의 임금을, 다른 종은 40년 치의 임금을, 세 번째 종은 20년 치의 임금을 받았느니라." 세 종 모두 엄청난 금액을 받았습니다!!

1. 예수님은 많은 것을 투자하십니다. 그는 인식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투자(우리에게 부여된 은사들)를 인정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전 직책에서 저희 선교부는 제자 양성, 리더십 훈련, 지역 사회 개발 분야에서 국제 파트너와 협력했습니다. 저희는 종종 재정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지역 사회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였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말씀, 영적 은사, 타고난 능력, 돈, 시간, 기회, 관계 등이 그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각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줍니다. 주인의 종들은 서로 다르며 주인은 그들을 다르게 대합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영적 은사의 분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것을 사용하라"(로마서 12:6; 고린도전서 12:4-5).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베드로전서 4:10).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심지어 움직이지 못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아, 나는 다섯을 받지 못했어, 두 개도 받지 못했어, 하나밖에 받지 못했어, 어쩌면 하나도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 나는 적게 받았어. 너무 적게 받았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간단한 말을 하겠습니다. 인생은 심각하게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재능이 있고(지적으로, 음악적으로, 운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많은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은 "왜 신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셨을까?"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많은 것'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입니다.

2. 예수님은 많은 것을 투자하십니다. 그는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16-17절에서 처음 두 종은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입니다. 지체 없이 사업에 착수하고 자본을 키웁니다. "오랜 시간 후에" 세 종의 주인이 계산

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 비유 이전의 두 비유에서 예수님은 지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24:48; 25:5).

첫 번째 종에게 주인의 지체는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인내심 있게 투자할 기회입니다. 그는 긴 시간에 걸쳐 놀라운 결과, 즉 100%의 이익을 달성합니다. 이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그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첫 번째 종이 충실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 칭찬의 말: 그는 그를 선하고 충실하다고 부릅니다(신뢰할 만한)
- 후한 연금? 아니요!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책임!
- 기쁨: 주인이 종을 자신의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금 그분의 왕국의 기쁨에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그 기쁨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천국은 게으른 쾌락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예수님의 임재와 은혜를 즐기는 상태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첫 번째 종에게 이야기하면서, 주인은 그가 처음 준 금액을 "적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주인의 관점에서 그것이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줄 수 있는 수백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두 달란트를 가지고 두 개를 더 만듭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두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도, 다섯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사용하시는 것을 주목하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보상은, 그들이 가져온 수익의 가치가 다르더라도 동일합니다.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얻은 금액이 아니라 위탁받은 것을 투자하는 충실성입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첫 번째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종은 준비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라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세 번째 노예는 구덩이를 판습니다! 그는 선물 받은 보물을 묻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년 치 임금을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종은 모든 종들 중 가장 쉬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관리해야 할 것이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맡겨진 거대한 금액을 가치 있게 여기고 투자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주인을 판단하고 비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합니다. 당신은 탐욕스럽고 악랄적인 자본가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원망 섞인 말투로 돈을 되돌려줍니다, “이것이 당신의 돈입니다!”

세 번째 종에게 주인은 잔인하고 불공평하며,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며 학대적인 존재입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그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고통, 한계, 상황,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필름 메이커인 달라스 젠킨스가 제작하고 감독하고 공동 집필한 시리즈 ‘The Chosen’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즈의 배경 이야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2017년, 달라스 젠킨스의 첫 할리우드 영화인 "The Resurrection of Gavin Stone"이라는 신앙 기반 영화가 북미 전역의 극장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엄청난 실패작입니다!! 실패를 계기로 젠킨스는 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소명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아내 아만다는 5,000명을 먹인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다시 읽으며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며 황량한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부재하시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흥행 참패 이후 달라스 젠킨스가 겪은 절망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거나, 부재하시거나, 심지어 잔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성격과 의도를 완전히 오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과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인을 판단합니다.

3. 예수님은 많은 것을 투자하십니다. 그는 용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 불쌍한 피해를 입은 영혼이여. 나는 왜 네가 너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말할까요?

26a 그러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은 "착하고 충성된"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주인은 질문을 이어갑니다. 26절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게 너의 비참한 평가였구나?!

글쎄,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너의 말이 너를 정죄한다. 최소한 돈을 은행에 맡겼어야 했다. 그것은 안전했을 것이다. 아무 일도 필요 없었다. 왜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도 하지 않았느냐?" 그의 잘못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D. A. 카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는 결코 무책임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덜 받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고 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카슨, 마태복음, 581쪽)

놀랍게도 주인은 세 번째 종이 예상했던 대로 이익을 자기에게 돌리는 대신,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고 두 배로 늘렸습니다.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떤 사람들은 29절을 어려운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진 자들에게 더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원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13:12)에도 작용합니다. 거기의 기본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계시와 이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굳은 마음에 더 많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은 맡겨진 것을, 그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예수님은 많은 것을 투자하십니다. 그는 희망을 기대하십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예수가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본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제자들이 맡겨진 것을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주었던 적게 주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충실함, 용기, 희망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의 재임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종이 주인이 맡긴 것을 투자했다면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재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에게 줄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울부짖고 이를 갈게"는 마태복음에서 지옥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입니다(8:12; 13:42, 50; 24:51; 25:46).주인과 세 번째 종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종은 주인도, 주인의 뜻도, 주인이 자신에게 투자한 것 또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옥을 선호합니다.

궁극적 심판의 언어는 수동적인 사람들을 안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의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며, 우리의 종교적 수행에 대한 보상도, 자선의 선행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에베소서 2:8-10

-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 각자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1. 은혜로 구원(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고립, 고통, 의미 부족에 대해 말하는 복음 메시지)
2. 증언(당신의 삶의 변화 스토리)
3.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고, 관대하게 뿌리세요)
4. 하나님의 영(그저 어떤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5. 영적 은사(선행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갖춰짐)
6. 자연적 능력(음악, 운동, 기계, 원예, 건설, 재봉)
7. 돈(넉넉하게 주세요).
8. 시간(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9. 기회(우리는 이 새해 전 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와 세상을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저녁을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10. 관계(배우자, 자녀, 조부모, 친구, 동료...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우리는 전능하고, 전지전능하고, 항상 현존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의 수동적인 승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인입니다. 모험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달라스 젠킨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와 그의 아내는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황폐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4시, 젠킨스가 자신이 잘못된 일을 분석하던 중 루마니아에서 온 페이스북 랜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일은 5000명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고기를 주는 것입니다."

2025년 끝에 예수님께서 Jenkins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질문은 "2025년에 5천 명을 먹였느냐?" (세상을 구했느냐, 아니면 2025년에 일어날 일을 예측했느냐, 아니면 내 재림의 날을 예측했느냐?)

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겼고, 너는 그것을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Dallas Jenkins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몇 개의 빵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바친 작은 소년만이 그 무리 중 유일하게 음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적은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신뢰할 만하고 충실하며 용기 있고 희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올해 대니와 신시아 아시릿은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 예수님은 그들과 우리 각자에게 내가 준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무엇을 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묵상 질문:

1. 인용문: “인생은 연약하고 덧없습니다. 우리는 끝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아는 역사 끝이든, 우리의 삶의 끝이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특권과 책임은 우리가 받은 소중한 인생의 순간들을 극대화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마이크 J. 윌킨스, 마태복음, 816쪽).
2. 2025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